



☆밭에 뿌린 29번째 동심의 꽃씨

광주·전남 거주하는 전국 유일의 아동문학 동인 '별밭' 31번째 활동 ... '줍지 않은 겨울' 20·21일 출판기념회

“동시는 꼭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평범하고 쉬운, 살아있는 우리말로 색동동 동시를 만들어야 한다. 토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시어로는 은유, 상징, 풍자 등을 넉넉히 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말을 갖고 다듬고 창조하는 선구자로 남고 싶다.”



위 글은 1992년 아동문학 동인지 '별밭 동인' 제6집에 실린 '동인선언' 일부다. 이들 동인들에게 동시는 “어린이의 눈과 마음이 되어 부른 노래”이자 “어른들의 숙된 마음을 동심으로 되돌리려는 몸부림”이다.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동시 시인들을 뭉쳐서 지난 1984년 창립된 '별밭동인'이 작품집 '줍지 않은 겨울'(동권 29호)을 발간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동인 작품집을 펴내며 척박한 아동문학 타진에 세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특히 아동문학으로만 이루어진 동인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모임으로, 30년 넘게 활동을 이어왔다는 것은 문화사적 측면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호에는 10여 년 간 동인을 이끌어 왔던 서원웅(1948~2015) 시인을 추모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서원웅, 당신을 추모합니다'라는 주제로 고정선 현 회장의 추모사와 이정석 회원의 추모시, 서시인의 대표작 '무등산 억새꽃', '줍지 않은 겨울', '봄 들녘에서', '외나무다리' 등이 수록됐다.

평론가인 윤삼현 시인은 '분향 지향의 동시 서정'이라는 주제로 서원웅 시인의 동시 세계를 조명했다. 윤 시인은 “서원웅 시인의 현실 인식은 궁극적으로 시인이 고향과 동어로 받아들이는 자연의 훼손을 아파하는 동시에 고향의 복원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자연과 삶에 대한 그의 일관된 관심의 표출이며 비장한 생명의식과 깨를 같이 한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밖에 고운자, 공공로, 김관식, 양희성, 윤삼현, 이육근, 이성룡, 조기호 시인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소재를 저마다 개성적인 시어로 펼쳐 보인다. 수록된 작품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작 자아의 폭이 넓다. 어린이에게는 아름다운 정서를 환기하고 어른에게는 때묻지 않은 동심을 나누어주려는 바람을 구현한 것이다.

'별밭'은 1984년 김관식, 서원웅, 심운섭, 윤삼현, 이정석 시인이 주축이 돼 동인을 꾸렸다. 이후 공공로, 고운자, 이성룡, 이육근, 조기호 시인 등이 가세하면서 모두 10명의 동인들로 구성이 됐다.

현재 동인회장을 맡고 있는 고정선 시인은 “회원들은 중앙문단을 통해 데뷔한 분들로 저마다 작품 역량이 뛰어나다”며 “두 분만 제외하고 모두 교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의 폭이 넓다”고 말했다.

석 달에 한 번씩 동인 모임을 갖고 있는 '별밭'은 10년 전부터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 전환했다. 내부적으로 작품 활동을 펼치는 데 관심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

또한 4년 전부터는 매년 시인 한 사람을 선정해 작품세계를 분석, 조명하고 있다. 회원 가운데 평론을 겸하는 시인이 있어 냉철하게 작품을 분석하고 의미를 펼쳐준다. '별밭'이 지금까지 모임을 꾸려오는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이 적지 않다. 2년 전 27호 작품집을 발간할 때는 “다문화가정”을 특징으로 꾸려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시를 번역했다. 이들은 발간된 작품집을 각 시군 다문화센터에 배부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다문화가정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고 회장은 “내년이면 30번째 동인지를 발간한다. 앞으로는 나름의 문학적 성취를 일군 회원과 젊은 회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동인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또한 다른 지역의 아동문학계와 연대와 교류를 통해 작품 세계와 시야를 넓혀가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별밭'은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고흥 나로도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은 나눔회와 품평회 그리고 향후 동인 진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의 010-4627-813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최돈선·이호준 시인 광주서 북콘서트

7일 동명동 천칭자리 인디언수니·수안 스님 공연

“느리게 오는 편지”의 최돈선 시인과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의 이호준 시인 겸 여행작가의 광주 북콘서트(광주시 동구 동명동 26번길 15-1 지하 1층)로 보내면 두 시인이 직접 읽는 시간도 마련한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북 콘서트는 도서출

판 마음의 숲이 주최하는 행사로 가수 인디언 수니와 수안스님 공연이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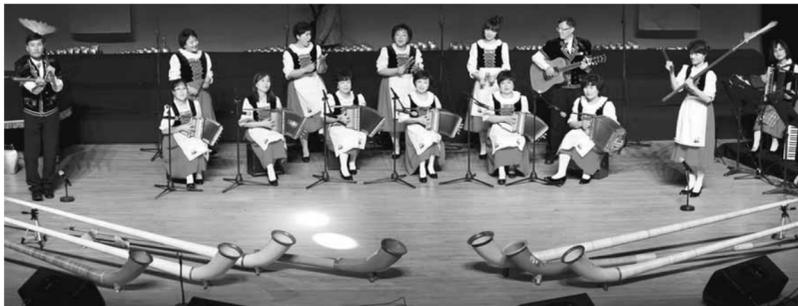
북콘서트에서는 저자들과의 대화와 함께 두 시인의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시인회도 진행된다. 또 평소엔 부칠 수 없었던 편지를 감성소통을 전칭자리(광주시 동구 동명동 26번길 15-1 지하 1층)로 보내면 두 시인이 직접 읽는 시간도 마련한다. 여행작가인 이호준씨는 ‘클레오파트



최돈선 시인 이호준 시인

라가 사랑한 지중해를 걷다’ 등의 저서를 펴냈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최돈선 시인은 ‘나는 사랑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 등의 시집을 펴냈다. 문의 062-224-77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에서 펼쳐는 ‘알프스의 꿈’



광주엔시안요델클럽

8일 문예회관서 정기연주회

“흥겨운 요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광주엔시안요델클럽이 창립 38주년을 기념해 오는 8일 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알프스의 꿈’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

번 연주회는 합창과 혼성듀엣, 혼성4중창 등 다양한 형태로 무대를 꾸미며 알프스 등 대표 민속 악기도 만날 수 있다. 신일호씨가 지휘를 맡은 합창은 ‘그리운 그대 목소리’, ‘벨라 빔바’, ‘할아버지 시계’ 등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사한다. 또 소방울인 ‘카우벨’, 핸드하모니카로 불리는 ‘오르겔리’ 대표적 리듬악기인 우드스폰 등 전통 악기 연주와 합

창으로 ‘애니 로리’ 등을 선사하며 포크댄스, 아코디언 연주 등이 이어진다. 이밖에 블루그래스 연주팀 ‘포키 밴드’는 ‘달려라 나의 마차여’와 가요 ‘행복의 나라로’ 등을 들려준다. 또 엔시안 선배이며 통기타 1세대인 국소남씨 등 OB 회원들도 참여해 무대를 장식한다. 전석 초대. www.jodel.kr. 문의 010-3625-84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호윤 작가 제17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신진작가상에는 엄기준(31·회화) 씨가 뽑혔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6일 제17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포트폴리오·작품 심사, 개별 면담 등을 통해 3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신 작가는 이번 미술제에 종이와 우레탄을 소재로 부처 등을 형상화한 “There is no essence-Buddha” 등의 작품을 출품했다.

심사위원들은 “신 씨는 종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구조화함으로써 진실과 허상에 대한 심도있는 자기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작업의 완성도가 높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씨는 공간 속에서 단순히 예술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사물에 내러티브를 투영시키는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엄씨는 시선을 압도하는 화려한 색의 대비, 리얼리즘적인 묘사, 비현실적인 구성이 환영과 상상력을 자극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4일 오후 5시 신세계 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향 신년음악회 협연자

소프라노 이승희



소프라노 이승희(사진)씨가 광주 시립교향악단 내년 신년음악회 협연자로 선정됐다. 광주시향은 최근 광주시향 연습실에서 2016신년음악회를 위한 협연자 오디션을 실시하고 이 씨를 최종 선정했다. 전남대를 졸업한 이씨는 뉴욕 맨하탄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오페라 ‘코지 판 투테’, ‘라 보엠’ 등 다수의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삼국유사’ 속 무속과 불교 만남 ... 갈등 아닌 화해의 서사

전남대 ‘BK21사업단’ 강연회

‘삼국유사’에 무속과 불교는 어떤 양상으로 서사화되었을까?

전남대 ‘BK21사업단’ 지역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 국어국문과 교수)이 제11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6일(오후 2시) 인

문대학 교수회의실(2호관 408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조현설 서울대(국어국문과) 교수를 초청, ‘무불의 접화와 화해의 서사’를 주제로 무속과 불교가 어떻게 교섭하고 그 작용의 결과로 서사문학 텍스트에 반영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특히 조 교수는 ‘삼국유사’ 등 기록 텍스트와 무속신화의 ‘창세기’ 등 구전 텍스트를 분석해, 한국 중세 초기 문학사의 맥락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 교수는 무속과 불교의 만남으로 주조된 서사가 갈등의 서사가 아닌 화해의 서사였음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조 교수는 ‘세계신화여행’, ‘귀신오고 이불의 비교문화론’, ‘마고할미 신화연구’ 등 45편의 저서를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제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커널로그) 다양한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채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방수! 직접 칠해 주세요

● 시외 -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